

KIA 조상우 ‘반전의 4월’ 예고

첫 경기 실패는 컨디션 난조 탓
동료들 덕분에 팀에 융화 잘 돼
“KIA는 강팀...오를 일만 남아”



KIA 타이거즈 조상우가 반전의 4월을 예고했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올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히는 KIA의 출발은 좋지 못했다. 지난 시즌 하위권에 머물렀던 NC, 기움, 한화를 연달아 만났지만 성적은 3승 5패에 그쳤다.

믿었던 불펜이 흔들리면서 잡아야 했던 경기들을 놓치면서 출발이 좋지 못했다. 그나마 3월 마지막 경기에서 조상우가 상승세의 한화를 상대로 1.2이닝 퍼펙트 피칭을 선보이면서 팀의 4연패를 끊어낸 것은 반갑다.

지난해 불펜의 ‘마당쇠’로 활약했던 장형석이 빠진 자리에서 기대를 받았던 ‘이적생’ 조상우는 올 시즌 KIA 성적의 키로 꼽히는 선수다. 새 팀에서의 첫 등판에서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올리지 못하고 1피안타 2볼넷을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조상우는 긴 연패로 갈 수 있던 상황에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조상우는 “주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 타자 한 타자 집중해서 상대하려고 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았다”며 KIA는 워낙 강한 팀이다. 시즌하면서 연패와 연승은 왔다 갔다 한다. 그 기간이 시즌 초에 빨리 왔다고 생각한다. 잘 이겨내서 팀이 좋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첫 결과가 너무 안 좋았지만 (새 팀에서의) 긴장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컨디션이 안 좋았다. 새 팀에서 새로 시작했지만 동료들이 오래 있었던 팀처럼 융화하게 해줘서 새로운 팀이라는 부담감은 없었던 것 같다”며 “시즌 처음부터 매진 될 정도로 많은 분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 초반 결과는 안 좋았지만 응원 덕분에 신나게 야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점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반갑다.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100% 컨디션이 올라오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던지는 느낌 자체는 좋아지고 있다. (30일 경기에서도) 변화구가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갔고, 직구도 생각했던 대로 가는 길을 잘 가고 있어서 좋아질 것 같다. 몸상태도 좋고, 던지는 느낌도 좋다. 한순간에 확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한 경기 한 경기 좋아지다 보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적응’의 시간은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 시즌 ABS(자동투구판정시스템)를 도입했던 KBO는 올 시즌 존에 변화를 줬다. 또 구장마다 ABS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만큼 시리즈마다 선수들은 ‘존’ 적응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조상우는 “어느 구장은 바깥쪽 잡아주고, 몸쪽 안 잡아주는 경우가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다. 바깥쪽



KIA 타이거즈 조상우(왼쪽)가 한화전에서 1.2이닝 퍼펙트 피칭을 선보이며 팀의 4연패를 끊어내고 반전의 4월을 예고했다. 오른쪽은 위즈덤.

〈KIA 타이거즈 제공〉

들어왔다 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해냈던 것 같다”면서도 “사실 다 핑계다. 잘 막아야 한다”고 웃었다.

마운드 위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조상우는 KIA 젊은 마운드에서 베테랑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조상우는 마운드 밖에서도 기대하는 역할을 하면서 순위 싸움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조상우는 “워낙 구위가 뛰어난 좋은 투수들이다. 1-2경기 안 좋았다고 처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선수가 있다면 다독여보겠다”며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 후배들이 이야기를 걸어주기를 바라고 있다(웃음). 후배들이 다가올 수 있게 조금 더 밝게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무리 출신으로 정해영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했다. 조상우는 “(전)상현이 투주조장으로 잘 대해주고, 해영이도 먼저 다가와서 하고 있다”며 “점수를 안 주는 투수는 없다. 시즌을 보내면서 점수를 적게 주면 좋겠지만 실점이 안 나올 수는 없다. 좋은 공을 가지고 있고, 마무리 연차도 되고, 멘털도 좋아서 잘할 것 같다. 걱정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선빈마저...KIA 또 ‘부상 로테이션’

종아리 근육 미세 손상...박찬호 등록때 엔트리 제외키로

KIA 타이거즈가 부상에 웃고 운다. 박찬호가 복귀 시동을 걸었지만, 김선빈이 자리를 비우게 된다.

KIA의 박찬호가 2일 함평철원저스필드에서 열린 KT와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날 1번 타자 겸 유격수 나선 박찬호는 3타석에 섰고, 수비도 5이닝을 소화했다.

박찬호는 1일에는 이범호 감독이 지켜보는 앞에서 타격, 수비 훈련을 소화했다. 사령탑 앞에서 워밍업을 한 박찬호는 2일에는 경기에도 출전해 5일 LG전 복귀에 이상이 없음을 알렸다.

이범호 감독은 2일 브리핑 자리에서 “1타석 더

친다고 하는 것 3타석만 치라고 했다. 움직임이랑 문제없다고 하니까, 10일 되는 시점에 올릴 수 있을 것이다”고 박찬호의 복귀를 언급했다.

하지만 박찬호의 재등록에 맞춰 부상 로테이션이 가동될 전망이다.

박찬호의 경기 출전 소식을 전한 이범호 감독은 이어 “김선빈을 박찬호가 오는 시점에 맞바꿔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선빈은 지난 28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1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했다가 6회초 세 번째 타석을 소화한 뒤 다음 수비 이닝에서 변우혁과 교체됐다. 이후 김선빈은 29·30일 경기에서는 대타로 두 타석만 소화했다.

좌측 종아리에 불편함을 느낀 김선빈이 검진 결과 근육 미세 손상 진단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플레이가 어려운 상황이다.

KIA는 내야 엔트리 카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박찬호를 등록할 때 김선빈을 엔트리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중간에 다른 선수를 등록할 경우 4일 만에 엔트리에서 제외해야 되는 만큼, 김선빈은 대타 자원으로 두고 박찬호의 등록 날짜에 맞춰 자리를 바꾸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범호 감독은 “트레이닝 파트에서 대타는 괜찮은데 수비랑 주루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지금 선빈이를 엔트리에서 빼고, 내야수 넣으면 또 엔트리를 빼야 한다. 내야가 풍족한 상황이 아니니까 김선빈을 대타로 하고, 박찬호 등록에 맞춰 엔트리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정후 3경기 연속 2루타
샌프란시스코 3-1 승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활약하는 이정후가 3경기 연속 2루타를 날렸다.

샌프란시스코는 2일 열린 2025 MLB 정규시즌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3-1로 이겼다.

3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4타수 1안타를 쳤다.

3월 30일과 31일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에서 연속 안타를 생산한 이정후는 전날 휴스턴과 경기에서 이어 4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순항했다. 특히 이정후는 최근 3경기 연속 2루타를 때려내며 장타 실력을 발휘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30일 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 8회초 내야 안타를 친 후 1루로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바람 계속 분다

시즌 타율은 전날 0.286에서 0.278로 소폭 하락했으나 지난 시즌 4개가 전부였던 2루타를 벌써 3개째 기록했다.

이정후는 지난 시즌 37경기에 나와 145타수 38안타, 타율 0.262와 장타율 0.331의 성적을 냈다.

올해는 5경기에서 18타수 5안타, 타율 0.278에 장타율은 0.444다.

1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2루수 직선타로 물러난 이정후는 팀이 2-0으로 앞선 3회 1사 2루에서는 2루 땅볼로 잡혔다.

5회 역시 2사 주자 없을 때 나와 외야 플라이를 쳤고, 8회 선두 타자로 나와 중견수 방면 2루타로 포문을 열었다. 이정후의 시즌 세 번째 2루타다.

이정후는 휴스턴의 세 번째 투수 스티븐 오커트의 2구째 시속 129km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중간을 가르는 장타로 연결했다. 타구 속도가 시속 168km에 이를 정도로 제대로 방망이에 걸렸다.

그러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정후는 이날 결과로 최근 3경기 연속 2루타, 4경기 연속 안타, 5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갔다.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3연승을 거두며 4승 1패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EPL도 SAOT 도입

12일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도 오는 12일 (한국시간)부터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SAOT)이 사용된다.

EPL 사무국은 2일 “오는 12일 열리는 2024~2025시즌 32라운드부터 SAOT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SAOT 기술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EPL 경기는 12일 오후 8시 30분 시작하는 맨체스터 시티-크리스털 팰리스전이다.

SAOT는 오프사이드 결정 과정의 주요 요소를 자동화해 비디오판독심판(VAR)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여러 개의 카메라가 공과 선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오프사이드 상황이 나오면 즉시 VAR에게 알리는 것으로, 판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정확성은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EPL은 이 기술이 오프사이드 결정의 속도, 효율성, 일관성을 향상시키면서 절차의 무결성을 유지한다고 소개했다.

이미 국제축구연맹(FIFA)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SAOT를 처음 도입하는 등 이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왔다.

지난해 초 카타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도 SAOT가 쓰였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